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첫 삽'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일원서 착공식 개최... 300억원 투입 올해 말까지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스마트팜 거점지로 발돋움할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착공식이 19일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서 첫 삽을 뜨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이종섭 장수군의회 부의장, 농업인 단체 등 주요 내빈과 관내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첫 시작을 성공적으로 알렸다.

2022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는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3개 동과 스마트팜 지원센터 등 총 8.2ha의 규모로 올해 말까지 조성 완료될 예정이다.

스마트팜 온실 3개 동은 4.0ha 규모로 스마트팜 온실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김제, 고흥, 밀양, 상주) 수료생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기회가 주어지며, 장수군 관내



장수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착공식이 19일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서 개최됐다.

청년 농업인 또한 입주 가능하다. 스마트팜 지원센터는 2층 건물 내 사무실, 다목적실, 교육실을 포함해 청년 농업인의 교육, 경영, 데이터 수록·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수군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농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더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련 영농기술 확보와 임대 농장 운영 기회를 제공해 농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청년 농촌 유입 효과 또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이 미래 농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착공식에 참석한 많은 관계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박차

동아리 지원·주민 제안 공모사업 참가팀 모집

무주군은 올해로 추진 3년 차를 맞은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에게는 활동의 토대가 되도록 추진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다양한 관광문화로 행복한 태권도 배후 도시 설천면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과 주민협의체(위원장 백남돈),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 설천면 현장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성)

가 함께 주민 제안 공모와 동아리 사업 등을 통하여 '머무르고 싶고 즐기고 싶은 설천'을 적극 조성해 나가고 있다.

2023년에는 묵밥과 묵, 전병 등 향토 먹거리 등 공동체 수익 사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졌으며 올해는 6개 주민 제안 공모사업과 12개의 동아리 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주민 제안 공모사업 6개와 동아리 6팀을 운영하며 5월에 개최

되는 삼도봉장터 한마당 축제에 사업의 진행 과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6개의 동아리팀을 운영하면서 10월 예정된 성과공유회에서 그 과정과 결과물들을 전시 및 공유할 예정이다.

2024년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동아리 지원사업 & 주민 제안 공모사업의 참가팀 모집은 오는 25일까지(심사 26일, 발표 27일)로 설천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센터장 김지성)로 신청(설천면 무설로 1577번지 1층, 063-324-1577)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맞춤형 컨설팅 추진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19일 최북미 술관 세미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전북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국환)과 함께 '고령 운전자 맞춤형 컨설팅 및 조기 적성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인 무주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86명이 참석해 상반기 수검과 함께 △고령 운전자 맞춤형 컨설팅(교통법규, 보행자 교통안전교육, 인지기능검사, 자가진단 분석 등)을 받았다.

또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 검사 등도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한편,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를 육박하는 무주군의 고령자(65세 이상)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645명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19일 서재영 부군수 주재로 2025~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2차 보고회를 가졌다.

무주군,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무주군이 2025~2026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군에 따르면 총 60건 8조 2천억 원 규모(대형 국책사업 7건, 7.9조 포함)로 이는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19일 서재영 부군수 주재로 2025~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2차 보고회(1차 2월 15일)를 가졌다.

각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금까지 발굴된 사업 60건(1차 31건, 2차 29건)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필요성 등이 공유됐으며 국비 확보방안 등도 논의됐다.

각종 용역에서 제안한 국가사업은 물론, 2024년도 국가 예산 미확보 사업의 보완과 재 사업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대응 등에 대한 선제

사업, 민선 8기 무주군수 공약사업 중 국가 예산 투자 사업 등에 관한 내용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이 발굴한 2025~2026년도 국가 예산 신규사업은 △전주~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국책)을 비롯해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3단계), △무주 노후 상수도(정수장) 정비,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열린지 유치, △국도 37호선 구천동 관광특구 보도 설치, △무주반딧불시장 리모델링 등이다.

무주군 서재영 부군수는 국비 확보와 관련해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무주 미래를 위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라며 "이 자리가 디딤돌이 돼서 자연특산물 무주에 걸맞은 정책과 사업들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19일 군청 강당에서 김병하 진안부군수 주재로 2025~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진안군,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 가져

진안군은 19일 군청 강당에서 김병하 진안부군수 주재로 2025~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번 전략회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발굴한 신규사업 및 공모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부처 단계 반영을 위한 중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예산 확보 주요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업 당위성 등에 대한 논리 보강,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앙부처의 반응, 사업 진행을 위한 사전절

차 이행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쟁점들을 심도있게 다뤘다.

진안군이 내년도 확보할 국가예산 주요 사업은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진안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웅치천적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전북 동부권 농기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총 51개이다.

김병하 부군수는 "5월 말까지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과 철저한 논리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깨끗한 물 공급 위해 상수도관 세척 공사 추진

진안군은 19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상수도관 세척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수도관 세척 사업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사업비 약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며 지난해 10월부터 수질민원, 관로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올해 추진 대상지 선정과 실시계획을 완료했다. 올해 사업은 정수장 및 관로 노후화가 심한 대불 급수구역(주천면 일원)과 월운 급수구역(백운·마령·성수면 일원) 중 관로 길이 대비 사용 수량이 적은 지역으로 55km를 단계적으로 세척한다.

먼저 작업 시작 전에 현수막 및 공사안내문을 통한 철저한 주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상수도 사용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상수도 사용이 줄어드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공사를 진행한다.

관 세척이 완료되면 해당 관로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6,200여 세대가 수질개선 등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총 67km의 상수도관 세척을 완료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추진

진안군은 하천의 재해예방과 미관개선을 위해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착수했다.

하천 기성제 정비는 하천에서 자생하는 잡목 및 수풀 등으로 하천 유수 소통을 방해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구간을 제거하여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재해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11개 읍·면 주민건의사항을 토대로 하천제방 및 월류 예방지역 등을 조사해 기성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기성제 정비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황금천(부귀면 하수항)을 시작으로 지방하천 10개소의 기성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며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예방을 위해 위기 전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